

한국천문연구원 기획부
윤완영 부장

노크를 하고 윤완영 기획부장님 방에 들어섰는데, 윤 부장님은 여전히 전화 통화 중이었다. 소파에 앉아서 방안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화이트보드 한쪽 끝에 여러 줄에 걸쳐서 곱게 써내려간 한문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불경 구절 같은데 하고 워

어 보려는 순간 윤 부장님이 먼저 인사를 건네 오셨다. 우선 신설된 기획부장 취임 축하 인사를 드렸다.
"7월 1일부로 신설된 기획부의 장을 맡게 되었어요. 첫 기획부장 자리라 어깨가 무겁고 어렵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1991년에 처음 연구소에서 근무를 시작했어요. 운영과 기획, 연구관리 업무를 해왔지요. 급여업무도 했었고, 광학부에서 일한 적도 있어요. 외자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었지만 주로 기획업무를 맡아 했었지요. 기획팀장으로 3년을 일했어요. 예산 관련 일도 2년을 했지요."

그동안 해 오셨던 업무 이야기를 듣고는 신설된 기획부의 주된 업무에 대해서 물었다.
"대외 발표 업무, 규정/제도 업무, 예산 업무, 연구관리 업무 등 모든 일들과 관련되어 있지만, 대외 발표 업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회나 과기부, 연구회 이사회를 상대로 한국천문연구원의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일이 바로 기획부장의 임무지요. 대외 환경을 우호적으로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잘 설명을 해야지요. 그래야 예산도 많이 따올 수 있어요."

한창 이야기가 진행 중인데 또 전화가 걸려왔다.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바쁜 자리임을 실감하게 해주는 순간들이었다. 기획부장으로서는 업무 전반에 대한 파악과 더불어 특히 전문학적

인 내용에 대한 파악도 중요할 것 같았다. 풍부한 행정 경험에 대해서야 질문의 여지가 없겠지만, 전문학적인 내용은 어떻게 파악하는지가 궁금했다.

"사실 연구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보통 천문학적인 세부 내용을 질문해 오거든요. 과제책임자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곤 합니다. 물어보고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천문학 관련 내용을 습득합니다.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 내용도 참고하고, 나름대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용어 정리도 하고 있습니다. 제 역할은 말하자면 천문학적인 용어를 쉽게 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여전히 천문학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천문학적인 원리를 알면 제가 대하는 고객을 이해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주측지 원리나 우주환경예보 원리와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야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원리를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과제책임자를 여러 번 찾아가서 물어보곤 합니다. 열 번 이상 물어본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아직 부족함을 느끼지요. 그래도 계속 달할 준비를 해두려고 늘 노력해요."

스스로 이해하고 체득한 것만을 전달하려고 하는 윤 부장님의 시도가 무척이나 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프로 정신이라고나 할까. "연구원들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연구에 몰두해야죠."

전문학적인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서 과제책임자를 찾아가는 만큼 행정적인 면에서 연구원들에게도 바라는 바가 있을 것 같았다.

“크게 바라는 것은 없어요. 다만, 연구 규정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부탁드려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즉시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구요. 그 정도예요.”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 ‘이주일의 칭찬 인물’에 실렸던 윤 부장님에 대한 평을 화제로 꺼냈다. ‘마음이 넓다’, ‘일을 나누어서 한다’, ‘답을 잘해준다’, ‘화를 내지 않는다’ 등등. 진짜 화를 내지 않는지 물었다.

“누구나 화가 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원인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면 화를 낼 일이 없지요. 저는 화를 잘 내지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한테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집에서도 화를 내지 말자 그렇게 다짐하며 살고 있어요. 왜 내가 화를 내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어요. 화 자체가 없어진다고나 할까요.”

화를 다룰 줄 아는 것이 윤 부장님이 수행 중인 단학 수련과 관련이 있는지 질문했다. 그런데 단학 수련 이야기는 살짝 비껴 놓고 역할과 배려 이야기를 내놓으셨다.

“부장은 부장의 역할이 있고, 팀원은 팀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서로 역할을 침범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갈등의 소지가 없겠지요.”

일하는 방식 이야기로 계속 이어졌다.

“저는 업무를 적절히 이양하는 스타일입니다. 실질적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고 권한을 부여하지요. 팀장이나 담당자가 잘 하리라 믿고 관여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갈등이 없어요. 만약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서로 역할을 조정하고 고치면 되지요. 결국, 어떤 경우든 화낼 일은 없다는 것이지요.”

현재 부원들의 역할 분담 업무 수행 정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90점 이상을 주고 싶네요. 사실 저는 사람을 뽑을 때 일 잘하는 사람 보다 조직 내에서 잘 커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봅니다. 우선 정직해야 하구요. 특히 정직하기 어려울 때 정직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겠지요. 책임감을 갖고 어려운 업무를 피해가지 말고 순차적으로 해결해 가는 사람, 그리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중에 조직에서 큰 일 할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결국 사람이 희망이라는 이야기였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소양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은 이들을 뒷받침할 시스템이라고 말을 이어갔다.

“조직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미약하지만 한 일 년쯤 후에는 체계가 잡힐 것 같아요. 이와 더불어서 기획부를 중심으로 업무의 표준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 행정 업무는 표준화시킬 수 있거든요. 시스템의 선진화지요.”

다시 화제를 단학 수련 이야기로 돌려 보았다.

“아내가 인천에서 일하는 바람에 주말 부부를 하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에 술만 마시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술 마시지 말고 착실하게 살자,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수영을 했어요. 제가 물을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해서요. 2000년부터 6년 정도 했습니다. 좋긴 좋은데 몸이 부르러워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단학 수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실제로 몸의 변화를 느꼈는지 궁금해졌다.

“처음에는 팔굽혀펴기 몇 번 못했는데 지금은 제법 합니다. 몸도 유연해지고, 서울 출장 가서 지하철 타고 다닐 때도 에스컬레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만 다녀요. 그래도 거뜬해요.”

몸 속의 기운이 순화되기 때문이란단. 그래서 힘든 것을 모르게 되고 마음도 따라서 깨끗해진다고 했다.

“단학 수련의 기본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거꾸로 마음을 깨끗이 하면 수련도 되고 몸 속 기운도 맑아지기도 하는 것도 같은 이치인 것 같다고 했다. 단학의 급수에는 별 관심이 없고 수련 자체에 더 관심이 있다고 하셨다.

“단학 수련을 하면서 불경 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불경 읽기를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알게 되었지요. 가장 중요한 건, 견성이 아닐까 합니다. 깨닫는 것, 즉 해탈이지요.”

마음과 몸의 수련을 병행하면 화가 날 상황을 만들지 않게 되고 욕심도 부리지 않게 된다고 했다. 결국 화 잘 안내는 비결이 여기에 있었던 것 같다.

“불경 쪽에 제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부처가 있다고 하잖아요. 장애를 벗어던지고 찾아가는 것이 인간 삶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내가 갈 당연한 길이기도 한 것이지요.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보드에 지워지지 않는 매직펜으로 불경 구절을 적어 놓고 늘 되새기지요. 좋아하는 글귀가 있어요. ‘남의 허물을 이야기 하는 것은 곧 자기 허물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려고 해요. 화 안내고.”

이렇게 시작된 마음 다스리는 이야기는 점심시간까지 내내 잔잔하게 이어졌다.

